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중간 보고서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현황조사 분과회

고지마 다이키

남윤진

마쯔자키 마히루

박종후

스가이 요시노리

오영민

이숙현

정인경

하세가와 유키코 (대표)

※이 조사 연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3월

차 례

1. 조사 배경과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 2.1. 대학 대상 조사
 - 2.2. 고등학교 대상 조사
 3. 조사 대상과 회답 회수 상황
 4. 집계 결과
 - 4.1. 대학 조사 결과
 - 4.2. 고등학교 조사 결과
 5. 과제
 6. 마무리
- 별첨 1 대학 대상 설문 항목
- 별첨 2 고등학교 대상 설문지 항목

1. 조사 배경과 조사 목적

일본은 한국 국외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한국(어)학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 온 지역이다. 아울러 학습자 모어인 일본어의 언어적 특성과 일본의 교육 제도의 틀 안에서 독특한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교수법 및 교재들 또한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한일 양국 간의 인적 및 문화적 교류가 급속도로 활발해졌고 그와 동시에 외교적 갈등, 역사 인식의 문제 등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연구 인력의 양성도 질과 양 양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조직 개편과 더불어 커리큘럼 개편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어 및 한국학을 둘러싼 교육 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오무라(1977, 1984)¹를 비롯하여 오고시(1994)², 국제문화포럼(1999³, 2005⁴)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영어 외의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수를 대학은 2001년부터 매년,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격년으로 조사, 공개해 왔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서는 세계 각국의 한국학 연구 현황 조사의 일환으로 2007년에 발간된 조사에 이어 2016년, 일본의 교육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KF 2018).

¹ 일본 내 대학에서 비전공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대학 수를 처음으로 조사한 것으로, 1977년에는 30 개교, 1984년에는 42 개교라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외국어 과목으로서의 지위, 학생의 이수 상황, 교원의 직위, 교육 목적 등이 조사되었다.

²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일본지부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교육 형태, 교육 내용에 주안을 두고 조사되었다. (오고시 1994: 272)

³ 현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포럼(TJF)과 주일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일본의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조사이다. TJF는 일본 및 여러 외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및 문화 교육 촉진을 통해 청소년의 인적 성장과 국제교류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7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내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⁴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학교 등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폭넓게 조사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조사는 과거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으나, 조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거나 일본 대학의 특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등, 현재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조사 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대학의 경우 수차례의 교육 개혁을 거치면서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복수의 과정과 프로그램이 공존하게 된 결과 대학마다 혹은 학부 내에서마저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어 단순하고 기계적인 설문 조사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교육제도의 복잡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 교원이 현재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조사는 어느 정도 규모의 조사 연구원에 의한 광범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였는데 때마침 일본의 독특한 환경과 사정에 걸맞는 한국학 현황 조사를 강구 중이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본격적인 일본의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

이에 본 사업에서는 2019년도의 작업으로서 전술한 1) 교육 기관의 변화 및 학습자의 실정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조사를 설계하고 2) 효율적이고 정확한 표본 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 3) 향후 심화된 내용의 전수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론과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 조사 방법

2.1. 대학 대상 조사

조사 항목은 KF(2018) 조사를 바탕으로 과거 일본에서 실시된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와 상기한 타 외국어 교육 현황 조사를 참조하여 기관 정보, 회답자 정보, 과정 정보, 한국어 수업 시수 및 수강자 수, 한국학 관련 과목 정보, 한국 연수 및 유학 정보,

한국학 관련 활동 등으로 나누어 질문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설문지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검토를 거듭한 끝에 먼저 모든 과정과 프로그램을 비교적 단순한 질문을 통해 ‘전공’, ‘강화’, ‘교양’의 3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도록 하고, 한 대학 내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이들을 독립된 것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다양화된 학기 제도(2 학기제, 3 학기제, 4 학기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설문 구성을 고안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별첨 자료 1 을 참조하기 바라며, 4 장에서 회답 결과와 분석 내용을 논의할 때에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기반 웹 입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학에 관한 설문에는 각 대학 내부 자료를 참조하거나 다른 부서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수백 개교에 이르는 조사를 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된 웹 기반 조사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ID/PW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다.

조사는 (1) 문서 데이터 설문지의 배부-회수 (2) 데이터 베이스화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조사 의뢰 기간 내에 웹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워드 파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기입하도록 한 뒤 회수된 내용을 연구 조사 위원이 다시 웹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문서 데이터 설문지의 배부-회수는 연구 조사 위원이 조사 대상 대학 담당자에게 2019 년 12 월 중에 설문지를 보내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뒤 회답을 요청하였다. 2020 년 2 월 중순에 회답 회수가 완료되었다.

(2) 데이터 베이스화는 회수한 설문 조사지의 회답 내용을 구축된 웹 기반 조사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2. 고등학교 대상 조사

고등학교는 대학에 비해 기관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며, 상술한 국제문화포럼(1999, 2005)과 고등학교 한국어교육네트워크(JAKEHS)⁵ 내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해 파악된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심플한 설문지 책정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google form 을 이용한 웹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 내용은 기관 정보, 국제교류 상황, 한국어 교육 실시 상황, 담당 교원 정보 및 교육 내용, 교육 기준, 사용 교재 등이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별첨 자료 2 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조사 대상과 회답 회수 상황

조사 대상은 최종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대학, 단기대학(2 년제), 전문학교(2 년제),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9 년도에는 파일럿 조사로서 조선어교육 학회 회원과 조사 팀원들의 인맥을 바탕으로 대학 100 개교와 고등학교 50 개교를 조사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대학의 경우 규모 차이도 크고 기구 구성도 다양하여 대학에 따라서는 각 학부마다 외국어 교육이 따로따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외국어 교육을 총괄하는 센터가 대학 전체 한국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도 있으며, 전공은 또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같은 대학이라도 하나의 교육 조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회답을 분석할 때는 대학 수보다 프로그램 수를 분석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2019 년도에는 대학 100 개교 126 개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그중 78 개교 91 개 프로그램(72.2%)에 대한 회답을 얻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종류 별로 나누면 전공 16 개, 강화 10 개, 교양 65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⁵ TJF 지원 하에 모이게 된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들이 1999 년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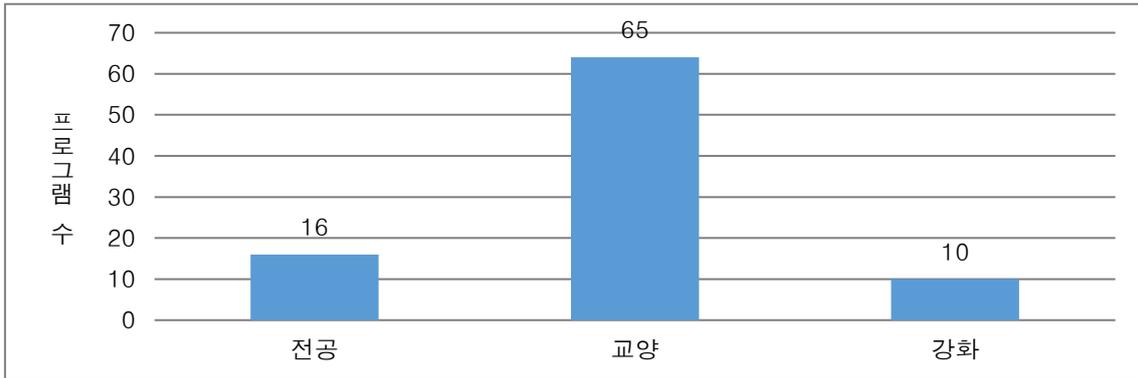


그림 1 2019 년도 프로그램 별 개설 현황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9 년 9 월에 개최된 JAKEHS 정례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회답은 10 월 말까지 웹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8 개⁶ 고등학교에서 회답이 있었으며, 집계 및 분석 작업을 11 월에 마무리하여 11 월 30 일에 개최된 JAKEHS 20 주년 기념 전국대회에서 그 개요를 보고하였다.

4. 집계 결과

4.1. 대학 조사 결과

Q1 은 교육기관 정보, Q2 는 회답자 정보, Q3 은 프로그램 종류(전공 과정, 강화 프로그램, 교양 과정) 선택, Q4 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하는 항목이다. 다음으로 Q5 와 Q6 은 해당 프로그램의 한국어가 대학 커리큘럼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전체 학생 수와 필수 학점, 프로그램 개시 시점 등을 묻는 질문이다. 이들 Q1 에서 Q6 의 예비적 질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Q7 부터 Q17 까지의 질문에 대한 회답을 전공 과정, 강화 프로그램, 교양 과정 순으로 분석해 나가기로 한다.

⁶ 그 중 45 개교가 유효 회답이며, 무효 회답인 3 개교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4.1.1. 한국어 수업의 주당 수업 시수, 수업 운영 방식, 수강자 수(Q7)

Q7 은 한국어 수업의 주당 수업 시수, 수업 운영 방식, 수강자 수에 대한 질문이다.

먼저 전공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 응한 전공 과정은 모두 1 회 수업 시간이 90 분이였다. 1 학년과 2 학년을 중심으로 살펴본 주당 한국어 수업 시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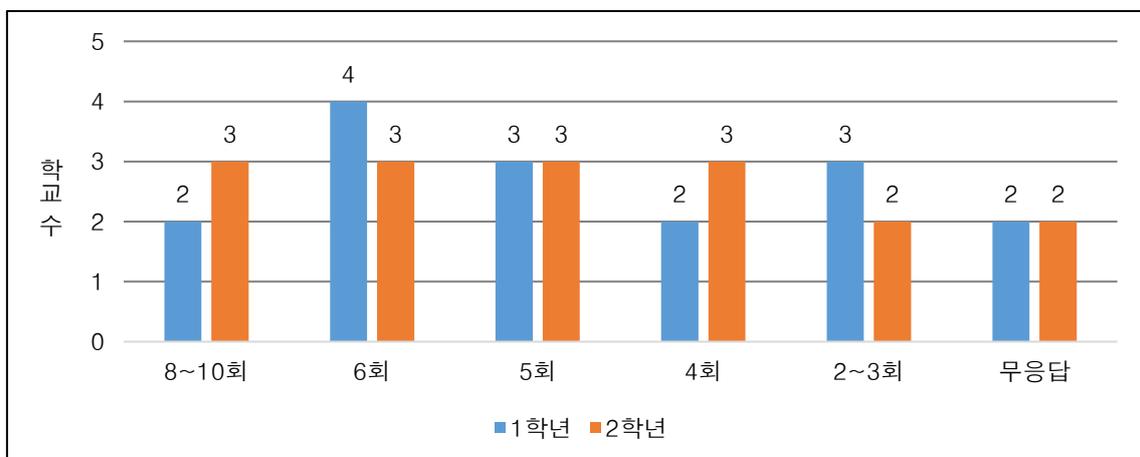


그림 2 전공 과정의 주당 한국어 수업 시수

그림 2 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당 2 회에서 최고 10 회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 학년 혹은 2 학년에 주당 5 회 이상 집중적으로 어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6 개교 중 9 개교로, 56.3%를 차지하는 한편 주당 수업이 2~3 회로 교양 과정과 별 다름이 없는 학교도 있다. 전공이면서 외국어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수업 시수가 적은 경우, 2 학년 혹은 3 학년 때에 수강생 전원이 한국에 교환 유학을 가게 되어 있는 경우와 한국어 자체보다 일본어로 한국학을 심화시키는 방식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당 수업 시수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니 1 학년 때에는 수업 시수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2 학년 때에 후기 수업 시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학교가 2 개교 있다. 각각 6 회에서 0 회로, 8 회에서 4 회로 감소되는데 이들은 교환 유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전공을 비롯한 많은 과정에서 교환 유학을 가는 경우, 보통 학년마다 실시되는 수업을 1 학기 또는 2 학기 동안 수강하지 않고 한두 명씩 교류 협정교로 교환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1 학기 동안 한국어 수업이 없다는 것은 그 과정에 소속된 학생 전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교류 협정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 또한 하나의 집중적인 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Q6 과 Q11 에 대한 회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 2 회 이상의 수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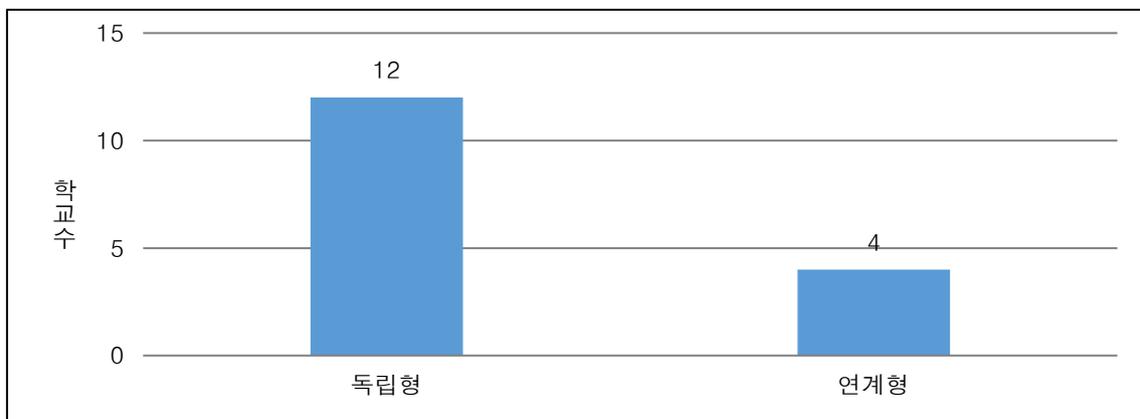


그림 3 전공 과정의 한국어 수업 운영 방식

그림 3 과 같이 16 개 전공 프로그램 중 주 2 회 이상의 수업이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4 개(25%)였다. 이들은 주당 수업이 5 회 혹은 6 회이며, 기본적으로 매일 적어도 1 회 이상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업이 서로 독립된 과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12 개교(75%)이지만, 공개된 실러버스에 의하면 전공 과정의 경우 회화, 문법, 작문, 강독 분야별로 나누어서 교육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 각 과정마다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교 별 한국어 전공 수강자 수를 살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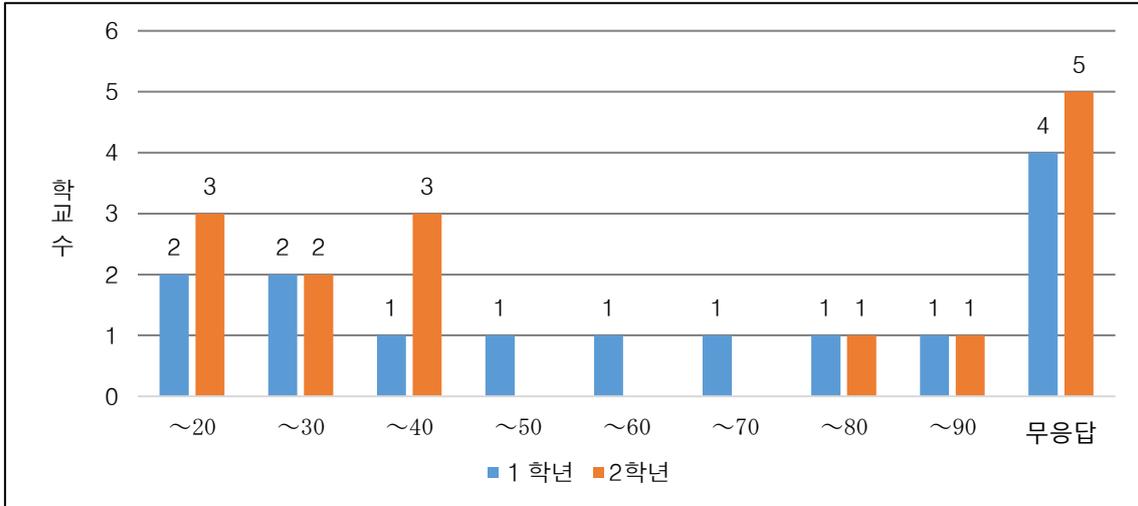


그림 4 전공 과정의 한국어 수강자 수

전공 과정의 수강자 수는 대체로 각 과정의 정원 수와 동일하며, 1, 2 학년 수강자 수의 회답이 전부 실수이다. 그런데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1학년 수강자 수와 2학년 수강자 수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2 에서도 나타났듯이 1년 내지 1년 반의 수업을 마친 다음에 교환 유학을 가는 학생이 많은 것과 1학년 때에는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고 2학년이나 3학년부터 학과 내에서 전공 코스가 나뉘어지는 학교가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강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강화 프로그램 10개 중, 1회 수업 시간이 100분인 학교가 4개교, 나머지 6개교는 90분이다.

주당 수업 시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이 1, 2년 차에 치중되는 프로그램과 3년 차 이후에도 계속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⁷.

⁷ 여기서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1년 차, 2년 차...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한국어 수업이 1학년 초에 시작되는 경우와 1학년 후반 혹은 2학년부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 과정의 시발점을 한국어 교육 개시시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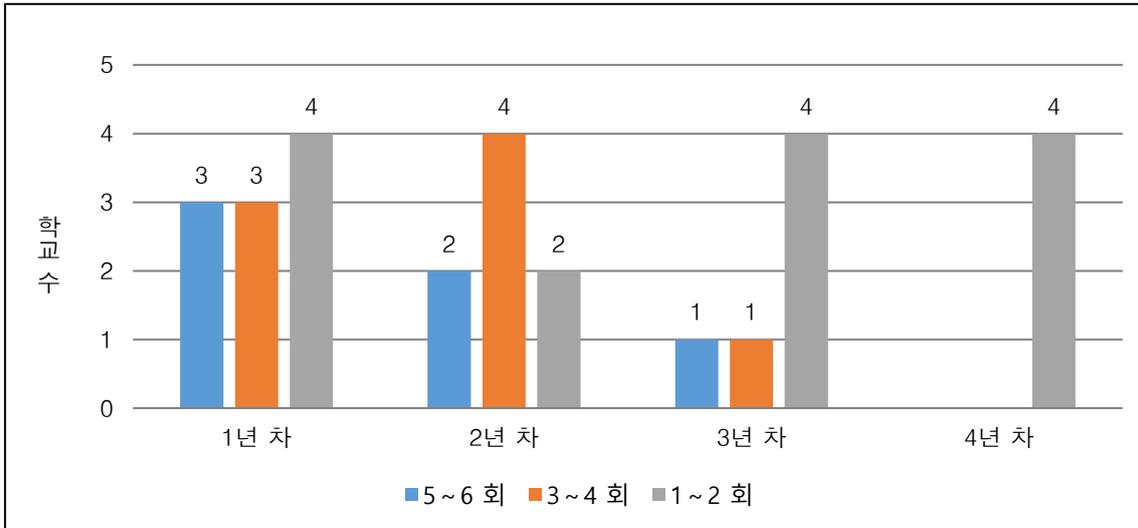


그림 5 강화 프로그램의 주당 한국어 수업 시수

그림 5 에서 보면 학습 1 년 차에는 주당 5~6 회의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3 개교, 3~4 회의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3 개교였다. 학습 2 년 차에는 4 개교가 3~4 회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상기 전공 과정과 마찬가지로 2년 차 혹은 3년 차에 수강생 전원이 유학을 가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10 개 중 4 개가 이에 해당된다. 원래 강화 프로그램은 학생의 주전공 이외에 한국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이를 또 하나의 강점으로 만들려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에 관한 한 전공 과정과 맞물릴 정도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강화 프로그램은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65 개의 교양 과정의 경우를 살펴 보겠다. 교양 과정의 경우 1 회 수업이 100 분인 곳이 6 개, 80 분인 곳이 1 개, 70 분인 곳이 2 개, 무응답이 2 개로, 나머지 54 개가 90 분 수업이다. 학기제도 다양하여 4 학기제가 5 개, 3 학기제가 2 개, 무응답 2 개를 제외한 56 개가 2 학기제로, 이들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한국어 학습 1년 차 첫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하에 수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한국어 학습 1년 차 수업, 즉 입문 단계 수업의 주당 수업 시수를 살펴보면 49 개

학교에서 주당 2 회 이상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에서 일반적인 과목은 주 1 회 수업이 기본이지만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과목은 그 특성상 주당 180 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9 개 학교 중 10 개 학교에서는 주 3 회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기는 하나 비교적 많은 양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대로 15 개 학교에서는 주 1 회만의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 2 회 이상의 수업이 개설된 학교에 비해 그 성과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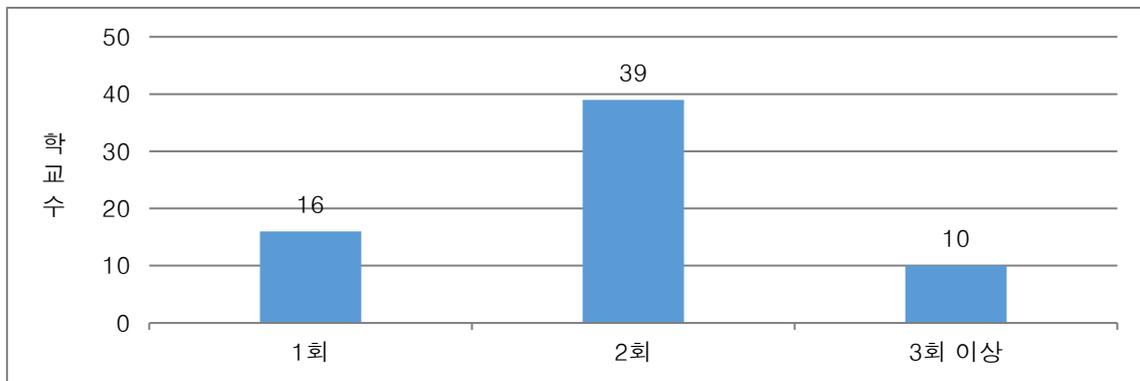


그림 6 교양 과정의 주당 한국어 수업 시수

다음으로 주 2 회 이상 한국어 수업이 있는 경우에 그 수업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49 개 중 40 개 대학에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교육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기능별로 수업이 실시되는데, 대학 교양 과정에서 주 2 회 이상의 수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회화와 문법과 같이 분야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나 담당자가 자기 생각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어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특히 입문 단계에서는 각 수업 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도 대학 교육의 체제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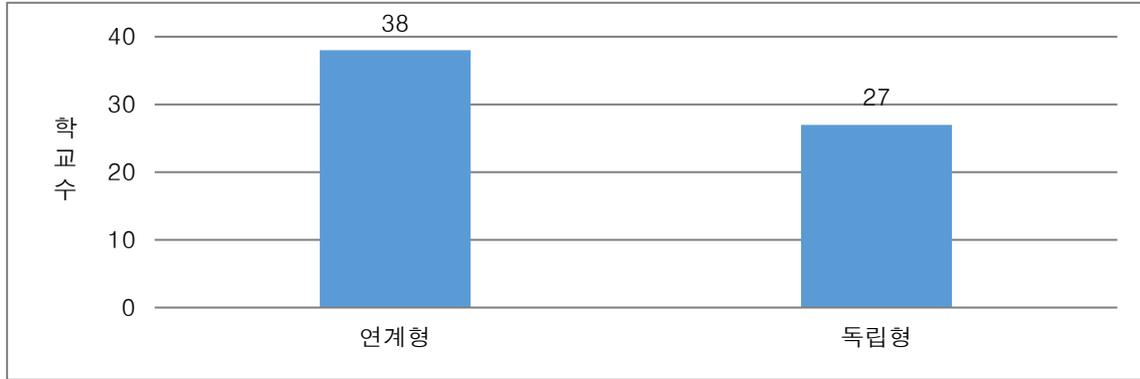


그림 7 교양 과정의 한국어 수업 운영 방식

그런데 주 2 회 이상의 수업이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수강자 수를 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각 수업 간에 연계가 있으면 학생 수 산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비해 수업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경우 등록 학생 수를 중복 계산하여 실제 학생 수의 몇 배로 잘 못 집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운영 방식을 질문한 것은 수강자 수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상 내용은 학습자가 가장 많은 1년 차(입문 단계) 수업의 분석 결과인데, 2년 차가 되면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65개 학교 중 2년 차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9개교였다. 한국어 학습을 계속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과목 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14개 학교에서는 주당 수업 시수가 줄어든다. 바꿔 말하면 조사 대상 대학 중 3분의 1 정도는 2년 차에는 1년 차 만큼의 수업을 수강하기가 어려운 입문 단계 중심형 수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년 차에 수업 시수가 많아지는 학교도 4개교 있었다.

수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2년 차가 되면서 연계형에서 독립형으로 전환되는 학교가 22개교로 나타났다. 학습 단계가 올라가면서 기능 별로 과목 설정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1년 동안 주 2회의 수업으로 기초가 형성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학생 자원에 맡기는 방침으로 변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수강자 수에 대한 질문에는 1년 차에 대해서는 53 개교에서, 2년 차에 대해서는 44 개교에서 회답이 있었다. 수강자 수를 실수로 회답한 경우에는 그 수를, 연 인원 수로 회답한 경우는 수강 방식을 감안하여 수강자 수를 2로 나누어 계산하여 100명 단위로 범주화한 것이 그림 8이다. 전체적으로 왼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1년 차에서는 200명 이하의 수강자인 학교가, 2년 차에서는 100명 이하의 수강자인 학교가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년 차에서 300명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학교는 1개교 뿐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입문~초급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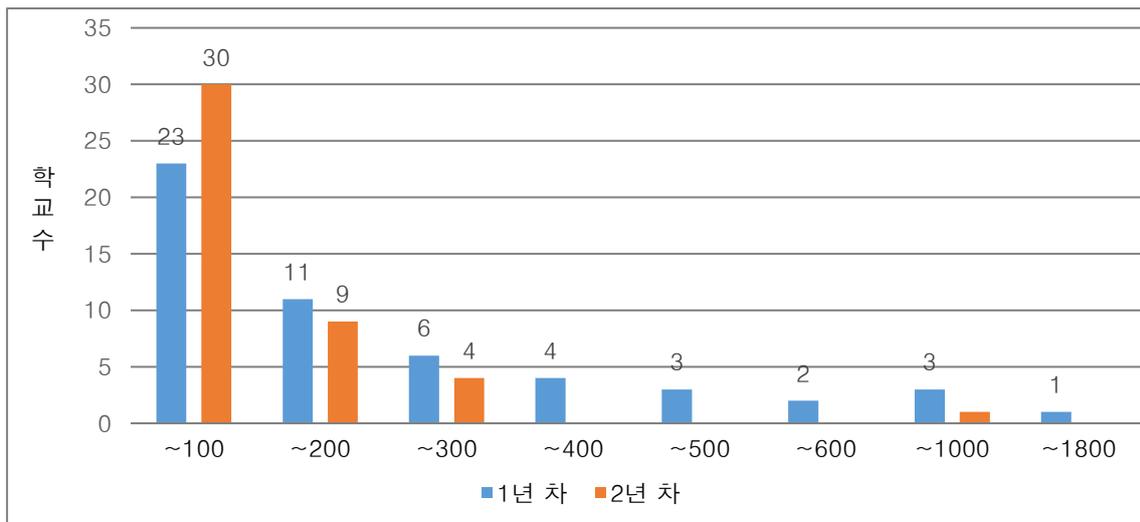


그림 8 교양 과정의 한국어 수강자 수

1년 차에 수강자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가 23개교, 101~200명인 학교가 11개교, 201~500명까지인 학교가 13개교이며, 500명을 넘는 학교가 6개교, 그 중 1000명을 넘는 학교가 1개교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년 차에는 300명을 넘는 학교는 1개교밖에 없다. 2년 차에는 전체적으로 수강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교양 한국어 과정이 입문~초급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년 차까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은 졸업을 위해 외국어 과목 학점 수가 많이 필요한 문과 계통 수강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수강생 규모가 작아지면 한국어 학습을 스스로 원해서 수강하는 학생의 비율이 늘 것이 예상되어 교육/학습 효과가 점점 높아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종류마다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각 연 차의 전체 수강자 수와 총 수강자 수를 정리하고자 한다. 종래의 교육 현황 조사에서는 '몇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주당 2회 이상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는데도 '등록자 수'로 회답하다 보니 실제 수강하는 학생의 수보다 많이 보고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2학기제인 경우 보통 전기와 후기에 같은 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각 학기의 등록 학생 수를 더해서 숫자를 내게 되면 수강생 수가 2배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먼저 각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몇 학기로 운영되고 있는지 학기 제도를 질문하여 각 학기마다의 수강자 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2개 이상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수업을 별개의 과목으로 운영하든지 1개의 과목으로 운영하든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이 '별개 과목'일 경우에는 수업 등록자 수의 합이 실제 수강자의 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연 인원'으로 하고, '1개 과목'일 경우 2회 이상의 수업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수강하는 학생의 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실 인원'으로 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각 학년의 첫 학기 인원을 그 학년의 수강자 수로 집계하였다. 전기보다 후기에 수강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학년 초에 그만큼의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들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회답이 있었던 프로그램은 전공 과정이 12개, 강화 프로그램이 7개, 교양 과정이 52개, 합계 71개였으며, 집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총계를 산출하는 데 있어 연 인원이라고 대답한 과정은 0.5를 곱하여 수강자 수를 산출하였다.

표 1 프로그램 별 및 전체 수강자 수 집계(추계) 결과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연 차 구분 없음	계	총계*
전공(12)	실 인원	542	357	190	182	0	1271	1321
	연 인원	0	0	50	50	0	100	
강화(7)	실 인원	230	105	46	23	0	404	404
	연 인원	0	0	0	0	0	0	
교양(52)	실 인원	10803	3568	473	37	0	14881	17322
	연 인원	3515	635	10	0	722	4882	
계(71)	실 인원 계	11575	4030	709	242	0	16556	19047
	연인원 계	3515	635	60	50	722	4982	
	총계*	13332.5	4347.5	739	267	361	19047	

*총계는 '실 인원+연 인원×0.5'의 계산식으로 산출하였다.

표 1 에 따르면 12 개 전공 과정의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의 수강자는 1,321 명, 강화 프로그램은 404 명, 교양 과정은 17,322 명으로, 3 가지 프로그램의 총계는 19,047 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및 학교 측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응답이 없었던 프로그램도 있어 다른 설문에 비해 응답률이 저조한 편이었다. 앞으로는 설문 방법을 재검토하거나 응답 기간을 넉넉히 잡는 등의 개선을 함으로 응답률을 올리고자 한다.

4.1.2. 담당 교원에 대하여(Q8)

Q8 에서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해 물어보았다. 각 프로그램의 담당하는 교원을 전임(정년제 및 임기제)과 비전임으로 구분하고 그 교원 수를 모국어(제1언어) 별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한 대학에서 복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교원의 인원수가 중복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표 2 프로그램 별 교원 현황

	모국어		한국어	일본어	기타 ⁸	계
전공 (16)	전임 교원	정년제	13	26	0	39
		임기제	14	4	0	18
		소계	27	30	0	57
	비전임 교원		43	25	0	68
	계		70	55	0	125
강화 (10)	전임 교원	정년제	7	9	0	16
		임기제	3	0	0	3
		소계	10	9	0	19
	비전임 교원		28	16	0	44
	계		38	25	0	63
교양 (65)	전임 교원	정년제	42	34	2	78
		임기제	9	0	0	9
		소계	51	34	2	87
	비전임 교원		249	110	1	360
	계		300	144	3	447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전공 과정은 16 개교에 전임 교원이 57 명으로, 한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10 개 프로그램에 19 명이 전임 교원이며, 대체로 일본어를 제 1 언어로 하는 교원 1 명과

⁸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중에 한국어나 일본어를 모국어(제 1 언어)로 하지 않는 경우로 3 명의 교원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가 1 명이며, 나머지 2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어 명시가 없었다.

한국어 원어민 교원 1 명이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양 과정의 교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응답한 65 개교에 447 명의 교원이 있는데 그 중 전임 교원이 87 명으로 약 20%, 비전임 교원이 360 명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제 1 언어를 보면 한국어 대 일본어의 비율이 전임의 경우 1.5 대 1, 비전임의 경우 2.3 대 1 로, 한국어 원어민 교원이 비전임 교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강화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공 과정의 경우 일본어를 제 1 언어로 하는 전임 교원이 한국어를 제 1 언어로 하는 전임 교원보다 많았고 특히 정년제 교원의 경우 그 차이가 2 배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일본어가 제 1 언어인 교원보다 한국어 원어민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전공 과정의 정년제 교원만이 일본어가 제 1 언어인 교원이 많고 강화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축소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외국어 교원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어 교육도 이와 같이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많은 원어민 비전임 교원 및 임기제 전임 교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 과정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의 인원 구성을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표 3 교양 과정 학교 별 한국어교원 구성 현황(1)

전임	인원수	비전임
15 개교	0 명	4 개교
26 개교	1 명	9 개교
16 개교	2 명	9 개교
5 개교	3 명	14 개교
2 개교	4 명	3 개교
0 개교	5 명	1 개교

1 개교	6 명	5 개교
0 개교	7 명	4 개교
0 개교	8 명 이상	16 개교
65 개교	계	65 개교

표 3에서 보면 전임 교원이 1명인 학교가 26개교로 제일 많고, 비전임 교원이 8명 이상인 학교가 16개교로 제일 많았다. 전임 교원이 0명인 학교도 15개교로, 전임 교원이 2명인 학교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대로 비전임 교원이 0명인 학교는 4개교였다. 다음으로 학교 별 전임/비전임 교원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교양 과정 학교 별 한국어 교원 구성 현황(2)

전임 / 비전임 교원	학교 수	전임 / 비전임 교원	학교 수
0명 / 1명	6	2명 / 1명	2
0명 / 2명	3	2명 / 2명	3
0명 / 3명	2	2명 / 3명	3
0명 / 4명	1	2명 / 6명	2
0명 / 5명	1	2명 / 7명	1
0명 / 6명	1	2명 / 10명	1
0명 / 8명	1	2명 / 11명	1
1명 / 0명	4	2명 / 15명	1
1명 / 1명	1	2명 / 18명	1
1명 / 2명	3	2명 / 22명	1
1명 / 3명	8	3명 / 3명	1
1명 / 4명	2	3명 / 6명	2

1명 / 7명	3	3명 / 8명	1
1명 / 8명	2	3명 / 17명	1
1명 / 12명	1	4명 / 8명	1
1명 / 13명	1	4명 / 27명	1
1명 / 17명	1	6명 / 14명	1
계		65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임 1명과 비전임 3명으로 구성된 학교가 8개교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전임 0명과 비전임 1명으로 구성된 학교가 6개교, 전임 1명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4개교였다.

4.1.3. 한국어 외의 한국학 관련 수업에 대하여(Q9)

Q9에서는 회답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 등 한국학 관련 강의나 실습 등의 수업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전공 과정에서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6과목에서 20과목 이상에 이르는 많은 한국학 과목이 설치되어 있었다.

표 5 <전공 과정> 한국학 과목 개설 현황

과목 수	4 과목	6 과목	7 과목	8 과목	11 과목	12 과목	16 과목	18 과목	20 과목 이상	계
학교 수	1	4	1	2	1	1	2	1	3	16

전공 과정 개설 학교 16개 가운데 한국학 과목을 20과목 이상 개설한 학교가 3개교, 10과목 이상 20과목 미만 개설한 학교가 5개교, 10과목 미만 개설한 학교는

10 개교였다.

전공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한국학 과목을 종류별로 정리하면 표 6 와 같다.

표 6 <전공 과정> 한국학 과목의 분야별 내역

과목 구분	사회과학				인문과학				개론	교직	제미	계
	경제학	국제 관계론	정치학	사회· 문화	언어학	문학	역사	사상				
과목 수	1	7	9	39	16	24	20	1	19	1	57	194
	56				61							

개설 과목 수는 모두 194 과목인데 인문과학(문학, 역사, 언어학, 사상)이 61 개로 가장 많고, 졸업 논문, 실습 등의 제미⁹ 과목이 57 개, 사회과학(사회·문화, 정치학, 국제관계론, 경제학) 과목이 56 개, 개론 과목이 19 개였다. 전공 과정인 만큼 교직 과목도 1 과목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강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한국학 관련 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겠다. 먼저 과목 수 별로 정리하면 표 7 과 같다.

표 7 <강화 프로그램> 한국학 과목 개설 현황

과목 수	없음	2 과목	3 과목	5 과목	11 과목	15 과목	계
학교 수	3	1	1	3	1	1	10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한 10 개교 가운데 한국학 과목을 10 과목 이상 개설한 학교가 2 개교, 5 과목 이상 10 과목 미만인 학교가 3 개교, 5 과목 미만인 학교가 2 개교였으며 한국학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3 개교였다.

⁹ 독일어 Seminar 의 일본어 번역어인 세미나ール(세미나르)를 줄여서 만든 말. 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소속 학생이 각각의 연구 주제를 정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수업. 보통 졸업 논문, 졸업 작품의 집필 및 제작을 최종 목표로 한다.

전공 과정보다 적긴 하나 10 과목 이상의 한국학 과목을 개설한 프로그램이 2 개나 되어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재를 양성하려는 열의가 느껴진다.

강화 프로그램 학생이 이수 가능한 한국학 과목을 종류 별로 정리하면 표 8 과 같다.

표 8 <강화 프로그램> 한국학 과목의 분야별 내역

과목 구분	사회과학				인문과학				개론	제미	현장 학습	계
	정치/ 경제/사회	국제 관계론	교육학	문화	언어학	문학	역사	사상				
과목 수	6	1	1	8	1	3	11	1	4	8	2	46
	16				16							

개설 과목 수는 모두 46 과목으로, 사회과학(문화, 정치·경제·사회, 국제관계론) 과목이 16 개, 인문과학(역사, 문학, 언어학, 사상) 과목이 16 개, 졸업논문, 실습 등의 제미 과목이 8 개, 개론 과목이 4 개였다. 강화 프로그램에 특징적인 점은 현장 학습이 2 개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양 한국어를 이수하는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한국학 과목 개설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9 <교양 과정> 한국학 과목 개설 현황

과목 수	없음	1 과목	2 과목	3 과목	4 과목	5 과목	6~9 과목	10 과목 이상	계
학교 수	27	15	4	4	5	4	3	2	64

교양 과정 개설 학교 65개 가운데 한국학 과목을 10 과목 이상 개설한 학교가 2 개교, 5 과목 이상 10 과목 미만 개설한 학교가 8 개교, 5 과목 미만 개설한 학교는 28 개교였으며 한국학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27 개교나 되었다.

교양 한국어 이수 학생이 수강 가능한 한국학 과목을 종류별로 정리하면 표 10 와 같다.

표 10 <교양 과정> 한국학 과목의 분야별 내역

과목 구분	사회과학				인문과학				개론	제미	계
	경제학	국제 관계론	정치학	사회· 문화	언어학	문학	역사	사상			
과목수	2	2	2	43	2	4	12	0	14	36	117
	49				18						

개설 과목 수는 모두 64 과목인데 사회과학(사회·문화, 경제학, 정치학, 국제관계론) 과목이 49 개로 가장 많았으며 졸업논문, 실습 등의 제미 과목이 36 개, 인문과학(역사, 문학, 언어학) 과목이 18 개, 개론 과목이 14 개였다.

4.1.4.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Q10)

Q10 에서는 회답한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이 대학을 통하여 참가할 수 있는, 혹은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참가할 수 있는 2 개월 이내의 현지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1 과 같다.

표 11 학교 별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1)

	있음	없음	무응답
전공(16)	14	2	0
강화(10)	7	2	1
교양(65)	46	15	4
계(91)	67	19	5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대학의 국제교류부서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공식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단기 어학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번에 조사한 91 개의 한국어 운영 프로그램 중 67 개교(73.6%),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19 개교(20.9%), 무응답이 5 개교(5.5%)였다.

다음으로 단기 어학연수에 참가한 경우에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지의 여부와 해당 과정에서 단기 어학연수 참가가 의무적인지도 물어보았다. 이를 한국어 수업 운영 방식 별로 정리하면 표 12 과 같다.

표 12 학교 별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2)

단기 어학연수			학점 인정			의무 여부		
			있음	없음	무응답	의무	선택	무응답
전공	있음	14	9	3	2	1	4	9
	없음	2	0	2	0	0	1	1
	무응답	0	0	0	0	0	0	0
	계	16	9	3	2	1	5	10
강화	있음	7	6	1	0	1	2	4
	없음	2	0	0	2	0	0	2
	무응답	1	0	0	1	0	0	1
	계	10	6	1	3	1	2	7
교양	있음	46	36	6	4			
	없음	15	0	3	12			
	무응답	4	0	0	4			
	계	65	36	9	20			

한국학 전공 과정이 있는 학교에서는 전체 16 개교 중 14 개교(87.5%)가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2 개교(12.5%)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프로그램 이수 후 학점 인정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14 개교 중 9 개교(64.3%)는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었고, 3 개교(21.4%)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 개교(14.3%)는 무응답이었다. 한편, 프로그램 참가가 학생들에게 의무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중인 14 개교 중 1 개교(7.1%)가 의무 사항이었고, 4 개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28.6%), 나머지 9 개교(64.3%)는 무응답이었다.

강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전체 10 개교 중 7 개교(70%)가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었고, 2 개교(20%)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1 개교(10%)는 무응답이었다. 학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중인 7 개교 중 6 개교(85.7%)가 학점을 인정해 주었고, 1 개교(14.3%)는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한편, 프로그램 참가가 의무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중인 7 개교 중 1 개교(14.3%)만이 의무라고 답했고, 2 개교(28.6%)는 의무가 아닌 선택, 나머지 4 개교(57.1%)는 무응답이었다.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65 개교 중 46 개교(70.8%)가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5 개교(23.1%)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프로그램 이수 후 학점 인정과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46 개교 중 36 개교(78.3%)가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었고, 6 개교(9.2%)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 개교는 무응답(6.2%)이었다.

이어서 2019 년도에 학교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의 인원수를 살펴보겠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 13 와 같다.

먼저 평균 참가 인원수를 살펴보면, 한국학 전공 과정이 있는 학교에서는 18.8 명, 한국어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13.6 명, 교양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13.3 명이였다(무응답 제외). 평균치만 비교해 보아도, 한국학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 13 2019 년도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수

참가 인원	전공	강화	교양
평균(무응답 제외)	18.8 명	13.6 명	13.3 명
0 명	0 개교	2 개교	1 개교
1~9 명	4 개교	1 개교	12 개교
10~19 명	2 개교	1 개교	15 개교
20~29 명	1 개교	1 개교	6 개교
30 명 이상	4 개교	1 개교	2 개교
무응답	5 개교	4 개교	29 개교
계	16 개교	10 개교	65 개교

한편 참가 학생의 규모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한국어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의 경우 10 명 미만인 학교가 전체 16 개교 중 4 개교(25%), 10~19 명인 학교가 2 개교(12.5%), 20~29 명인 학교가 1 개교(6.3%), 30 명 이상인 학교가 4 개교(25%), 무응답이 5 개교(31.3%)였다.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체 10 개교 중 0 명인 학교가 2 개교(20%), 10 명 미만인 학교가 1 개교(10%), 10~19 명인 학교가 1 개교(10%), 20~29 명인 학교가 1 개교(10%), 30 명 이상인 학교가 1 개교(10%), 무응답이 4 개교(40%)였다. 교양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체 65 개교 중 0 명인 학교가 1 개교(1.5%), 10 명 미만인 학교가 12 개교(18.5%), 10~19 명인 학교가 15 개교(23.1%), 20~29 명인 학교가 6 개교(9.2%), 30 명 이상인 학교가 2 개교(3.1%), 무응답이 26 개교(40%)였다.

4.1.5.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하여(Q11)

Q11에서는 회답한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한국 교환유학, 파견유학 프로그램(이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함)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4 과 같다.

표 14 학교별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1)

	있음	없음	무응답
전공(16)	15	1	1
강화(10)	8	2	0
교양(65)	51	10	4
계(91)	74	13	5

표 14 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번에 조사한 91 개의 한국어 운영 프로그램 중 74 개교(81.3%),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은 13 개교(14.3%), 무응답이 5 개교(5.5%)였다.

다음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지의 여부와 해당 과정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가 의무적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이를 한국어 수업 운영 방식 별로 정리하면 표 15 와 같다.

표 15 학교 별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2)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점 인정			의무 여부		
			있음	없음	무응답	의무	선택	무응답
전공	있음	15	15	0	0	1	3	11
	없음	0	0	0	0	0	0	0
	무응답	1	1	0	0	0	0	1
	계	16	16	0	0	1	3	12
강화	있음	8	8	0	0	2	2	4
	없음	2	1	0	1	0	0	2
	무응답	0	0	0	0	0	0	0
	계	10	9	0	1	2	2	6
교양	있음	51	46	1	4			
	없음	10	0	3	7			
	무응답	4	1	0	3			
	계	65	47	4	14			

한국학 전공 과정이 있는 학교에서는 전체 16 개교 중 15 개교(93.8%)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1 개교(6.2%)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프로그램 이수 후 학점 인정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15 개교 중 모든 학교가 학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관하여 무응답이었던 1 개교도 학점 인정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6 개교이고, 이들 모두 학점 인정 제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를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중인 15 개교 중 1 개교만(6.7%)가 의무 사항이라고 응답하였고, 3 개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20%), 나머지 11 개교(73.3%)는 무응답이었다.

강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전체 10 개교 중 8 개교(80%)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2 개교(20%)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 학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중인 8 개교는 모두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었다. 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2 개교 중 1 개교는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이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휴학을 하고 3 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것인지 단순히 입력 실수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프로그램 참가가 의무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중인 8 개교 중 2 개교(25%)만 의무라고 답했고, 2 개교(25%)는 의무가 아닌 선택, 나머지 4 개교(50%)는 무응답이었다.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65 개교 중 51 개교(78.5%)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0 개교(15.4%)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4 개교(6.2%)는 무응답이었다. 프로그램 이수 후 학점 인정과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51 개교 중 46 개교(90.2%)가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었고, 1 개교(2%)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 개교는 무응답(7.8%)이었다¹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가가 의무인지에 대해서는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어서 2019 년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의 인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16 과 같다.

¹⁰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에 대하여 무응답이었지만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점을 인정한다는 응답이 1 곳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실수로 응답이 누락된 것인지, 학교 자체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운영하지는 않지만 학생이 개인적으로 장기간의 어학연수 등을 다녀오면 그 학점을 인정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표 16 2019 년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수

참가 인원	전공	강화	교양
평균(무응답 제외)	13.1 명	10.8 명	5.4 명
0 명	0 개교	0	4 개교
1~9 명	7 개교	6	33 개교
10~19 명	5 개교	0	2 개교
20~29 명	1 개교	1	0 개교
30 명 이상	2 개교	1	1 개교
무응답	1 개교	2	25 개교
계	16 개교	10 개교	65 개교

먼저 평균 참가 인원수를 살펴보면, 한국어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에서는 13.1 명,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10.8 명, 교양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5.4 명이였다. 산술적인 평균만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전공 과정이나 강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참가 학생의 규모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한국어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의 경우 10 명 미만인 학교가 전체 16 개교 중 7 개교(43.8%), 10~19 명인 학교가 5 개교(31.3%), 20~29 명인 학교가 1 개교(6.3%), 30 명 이상인 학교가 2 개교(12.5%), 무응답이 1 개교(6.3%)였다.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체 10 개교 중 10 명 미만인 학교가 6 개교(60%), 10~19 명인 학교가 0 개교(0%), 20~29 명인 학교가 1 개교(10%), 30 명 이상인 학교가 1 개교(10%), 무응답이 4 개교(40%)였다. 교양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체 65 개교 중 0 명인 학교가 4 개교(6.2%), 10 명 미만인 학교가 33 개교(50.1%), 10~19 명인 학교가 2 개교(3.1%), 20~29 명인 학교가 0 개교(0%), 30

명 이상인 학교가 1 개교(1.5%), 무응답이 25 개교(38.5%)였다.

4.1.6. 교외 한국어 시험에 대하여(Q12)

Q12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을 볼 것을 권장하고 있는지, 권장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7과 같다.

표 17 교외 한국어 시험 권장에 관한 현황

	전공(16)	강화(10)	교양(65)	계(91)
「한글」능력검정시험	9(56.3%)	4(40%)	38(58.5%)	51(56%)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3(81.3%)	7(70%)	44(67.7%)	64(70.3%)
따로 권유하고 있지 않음	3(18.8%)	2(20%)	14(21.5%)	19(20.9%)
그 밖의 다른 시험	0	0	0	0

(복수 응답 가능,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전체적인 비율을 살펴보자면, 「한글」능력검정시험을 권장하고 있는 곳은 이번에 조사한 91 개 한국어 운영 프로그램 중 51 개교(56%),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경우에는 64 개교(70.3%), 특별히 한국어시험을 권장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19 개교(20.9%)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에서는 전체 16 개교 중 「한글」능력검정시험은 9 개교(56.3%), 한국어능력시험은 13 개교(81.3%), 어떤 시험도 특별히 권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3 개교(18.8%)였다. 한국어 수업을 강화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전체 10 개교 중 「한글」능력검정시험은 4 개교(40%), 한국어능력시험은 7 개교(70%), 어떤 시험도 특별히 권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2 개교(20%)였다. 한국어 수업을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전체 65 개교 중 「한글」능력검

정시험은 38 개교(58.5%), 한국어능력시험은 44 개교(67.7%), 어떤 시험도 특별히 권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14 개교(21.5%)였다.

참고로 「한글」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양쪽을 모두 권유하고 있는 학교는 전공 쪽 9 개교(56.3%), 강화 프로그램 쪽 4 개교(40%), 교양 쪽 33 개교(50.8%)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어 수업을 전공이나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 중 「한글」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할 것을 권유하는 곳은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외 한국어시험의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지, 그리고 학생이 의무적으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아래의 표 18 과 같다.

표 18 교외 한국어 시험 관련 운영 현황

교외 한국어시험	학점 인정			의무 여부		
	있음	없음	무응답	의무	선택	무응답
전공(16)	5	5	6	0	3	13
강화(10)	3	5	2	0	3	7
교양(65)	19	24	22			
계	27	34	30	0	6	20

교외 한국어시험의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전체 조사 대상인 91 개의 한국어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교는 27 개교(29.7%), 인정해 주지 않는 학교는 34 개교(37.4), 무응답이 30 개교(33%)였다. 이를 한국어 수업의 종류별로 좀 더 살펴보면, 한국어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16 개교 중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교가 5 개교(31.2%),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학교가 5 개교(31.2%), 무응답이 6 개교(37.5%)였다. 또 한국어 수업을 강화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10

개교 중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교가 3 개교(30%),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학교가 5 개교(50%), 무응답이 2 개교(20%)였다. 한국어 수업을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65 개교 중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교가 19 개교(29.2%),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학교가 24 개교(36.9%), 무응답이 22 개교(33.8%)였다.

한편, 교외 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와 관련하여,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 전체 16 개교 중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는 학교가 0 개교(0%), 선택사항인 학교가 3 개교(18.8%), 무응답이 13 개교(81.3%)였다. 또 한국어 수업을 강화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도 전체 10 개교 중 한국어 시험 응시가 의무인 학교가 0 개교(0%), 선택사항인 학교가 3 개교(30%), 무응답이 7 개교(70%)였다. 참고로, 한국어 수업을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4.1.7. 한국어 학습 경험자에 대한 대응(Q13)

입학 전에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9 과 같다.

입학 전 한국어 학습 유경험자에 대해서 다른 학생과 구별하지 않고 초급부터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가 54 개교(66.7%), 이미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 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2 년 차 이상의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는 15 개교(18.5%), 교내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하여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가 3 개교(3.7%), 등록 자체는 초급 과목으로 하지만 실제 수업은 2 년 차 이상의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가 11 개교(13.6%), 기타가 9 개교(11.1%)였다.

표 19 입학 전 한국어 학습 유경험자 취급 현황

대응 방법	전공(16)	교양(65)	계(81)
다른 학생들과 구분 없이 초급 과정을 수강하게 한다.	11	43	54
공인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 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2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수강하게 한다.	2	13	15
입학 시에 대학 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고 레벨에 맞는 수업을 수강하게 한다.	1	2	3
초급 과목을 등록하게 하고 2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수강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9	11
그 밖	2	7	9

(복수 응답)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초급부터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가 11 개교(68.8%), 이미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 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2년 차 이상의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는 2 개교(12.5%), 교내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하여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가 1 개교(6.3%), 등록 자체는 초급 과목으로 하지만 실제 수업은 2년 차 이상의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가 2 개교(12.5%), 기타가 2 개교(12.5%)였다.

한국어 수업을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초급부터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가 43 개교(66.2%), 이미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 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2년 차 이상의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는 13 개교(20%), 교내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하여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가 2 개교(3.1%), 등록 자체는 초급 과목으로 하지만 실제 수업은 2년 차 이상의 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가 9 개교(13.8%), 기타가 7 개교(10.8%)였다. 참고로, 한국어 수업을 강화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다.

4.2.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현황

설문에 회답한 48 개교 중 유효 건수는 45 개교로, 이들 회답 결과를 이하에서 분석한다. 예비적 항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적 분석이 가능한 설문 항목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겠다.

4.2.1. 해외 자매결연 학교에 대해서

해외에 자매결연 학교(제휴교)가 있는지, 있으면 제휴교와의 주된 교류 내용을 선택지에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휴교가 있다고 회답한 학교가 17개교, 없다고 대답한 학교가 28개교였으며, 제휴교가 있는 학교의 교류 내용은 그림9와 같았다.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는 대답이 16 개교였고, 다음으로 학생의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9 개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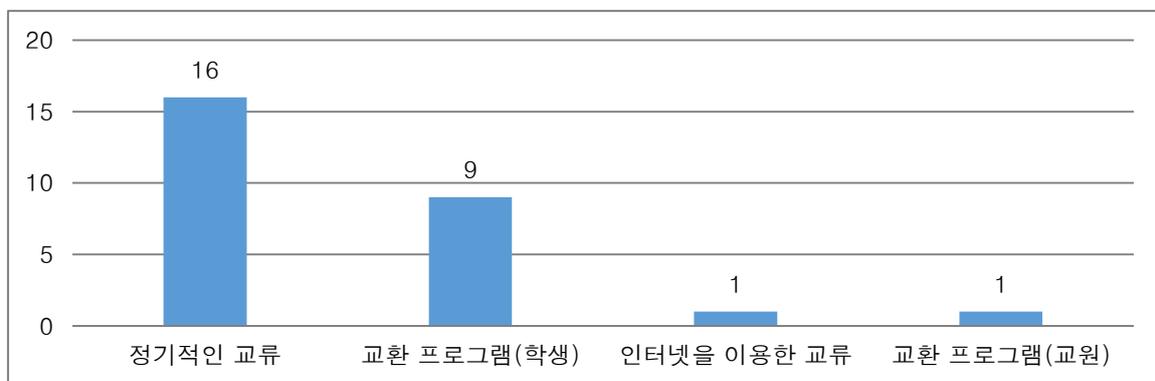


그림 9 해외 자매 결연 학교 교류 현황

4.2.2. 한국어 교육의 개요

먼저 각 교육기관에 한국어와 영어 이외에 개설된 외국어 과목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회답은 여러 외국어를 제시하여 모두 체크하도록 하고 해당 언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타'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회답을 정리한 결과는 그림 10 과 같다. 한국어와 더불어 중국어 수업이 있는 학교가 33 개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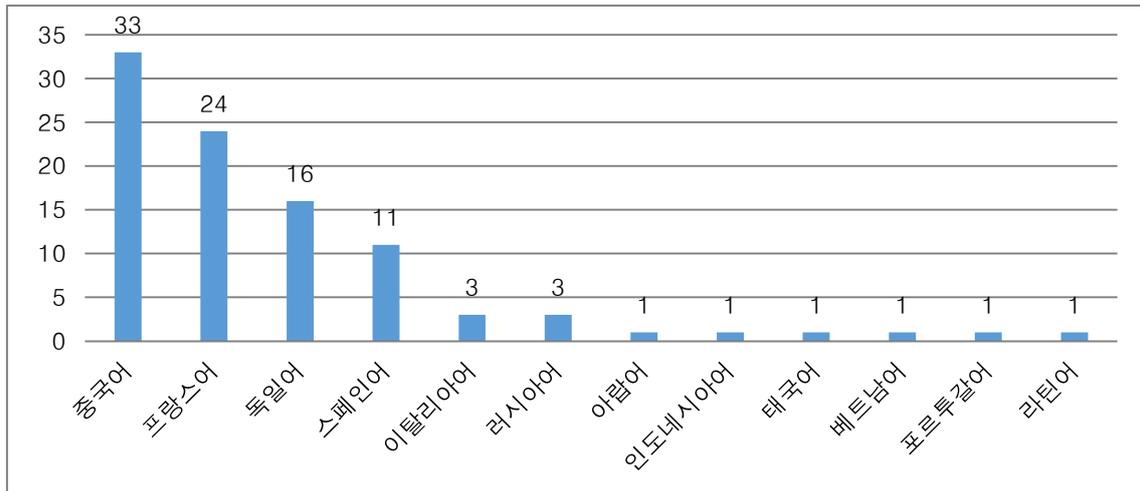


그림 10 한국어 외 외국어 과목 개설 현황

문부과학성(2018)에 의하면 2018년에 전국의 고등학교(4,897개교)에 영어 외의 외국어가 개설된 학교 수를 언어별로 보면 중국어(497개교), 한국어(342개교), 프랑스어(201개교), 스페인어(96개교), 독일어(96개교) 순으로 많았다. 본 조사는 한국어 개설교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한국어(45개교)가 당연히 가장 많으나 그 외의 외국어 개설 현황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4.2.3. 한국어 과목 이수 방법에 대하여

다음으로 한국어 과목의 이수 방법을 제시된 선택지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항목이 선택지가 없는 경우나 학과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회답은 그림 11 과 같다. 자유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31 개교, 필수선택과목이 15 개교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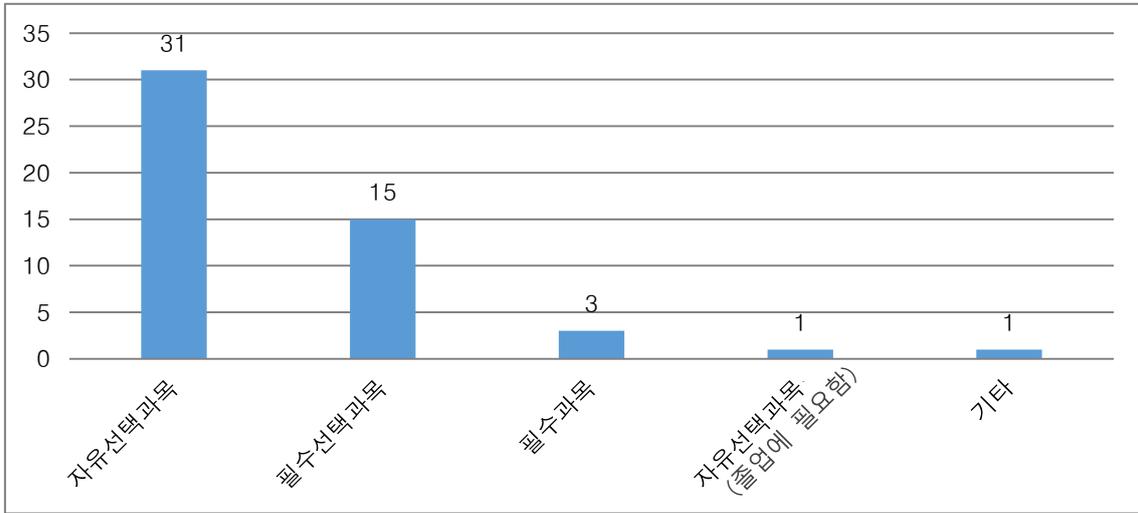


그림 11 한국어 이수 방법 현황

이어서 한국어 과목의 이수 단위에 대해 물어보았다. 제시된 선택지에 각 학습 연 차별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학과, 코스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이 설문 항목을 제외한 다음 항목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0 와 같다.

표 20 한국어 이수 단위 현황

	1년 차	2년 차	3년 차
1 단위	3	0	0
2 단위	35	20	5
3 단위	1	0	0
4 단위	3	2	0
계	42	22	5

표 2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 1년 차에 2 단위를 이수하는 학교가 35 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년 차에 2 단위를 이수하는 학교가 20 개교로 나타났다. 3년

차에도 한국어를 이수할 수 있는 학교가 5 개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 별 이수 단위 수의 조합은 그림 12 와 같다. 1 년 차에만 2 단위를 이수하는 학교가 16%, 학습 1, 2 년 차에 각각 2 단위를 이수하는 학교가 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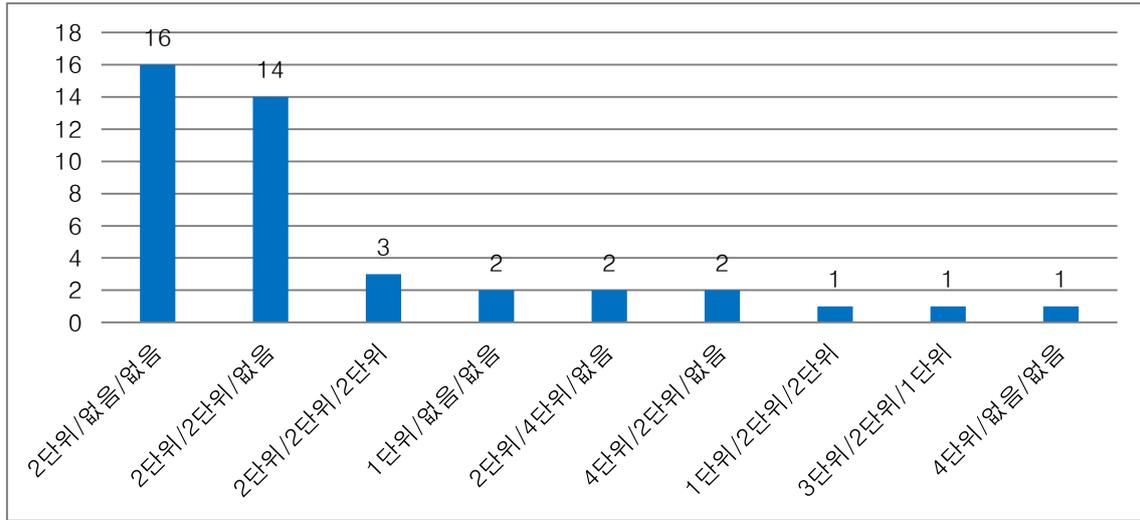


그림 12 학년 별 한국어 이수 단위 수의 조합

4.2.4. 한국어 담당 교원에 대하여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속성에 대해 직위 별, 모국어 별 인원수와 수업 시수를 물어보았다. 고등학교의 1 회 수업 시간은 45 분~50 분이다. 회답 결과를 정리하면 표 21 과 같다.

표 21 을 살펴보면, 교원 70 명 중, 교사가 12 명(17%), 강사가 52 명(74%), 원어민 보조교사가 5 명(7%), 특별 비상근강사가 1 명(1%)으로, 강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일본어가 제 1 언어인 교원이 교사 12 명 중 10 명이고, 강사 36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담당 교원의 속성 분포 (직위 별, 모어 별 인원수와 수업 시수)

교원 속성 \ 수업 시수		수업 시수												
		1	2	3	4	5	6	8	9	10	11	12	15	계
교사	한국어								1				1	2
	일본어		2		1		2	3			1	1		10
	소계		2		1		2	3	1		1	1	1	12
강사	한국어		6		6	2				1		1		16
	일본어	1	21	1	6		4	2		1				36
	소계	1	27	1	12	2	4	2		2		1		52
원어민 보조교사	한국어		2		2		1							5
특별 비상근 강사	일본어	1												1
계		2	31	1	15	2	7	5	1	2	1	2	1	70

담당 수업 시수를 살펴보면 주 2 회가 31 명으로 가장 많았고, 31 명 중 23 명이 일본어가 제 1 언어인 교사였다. 그림 13 은 표 21 을 그래프화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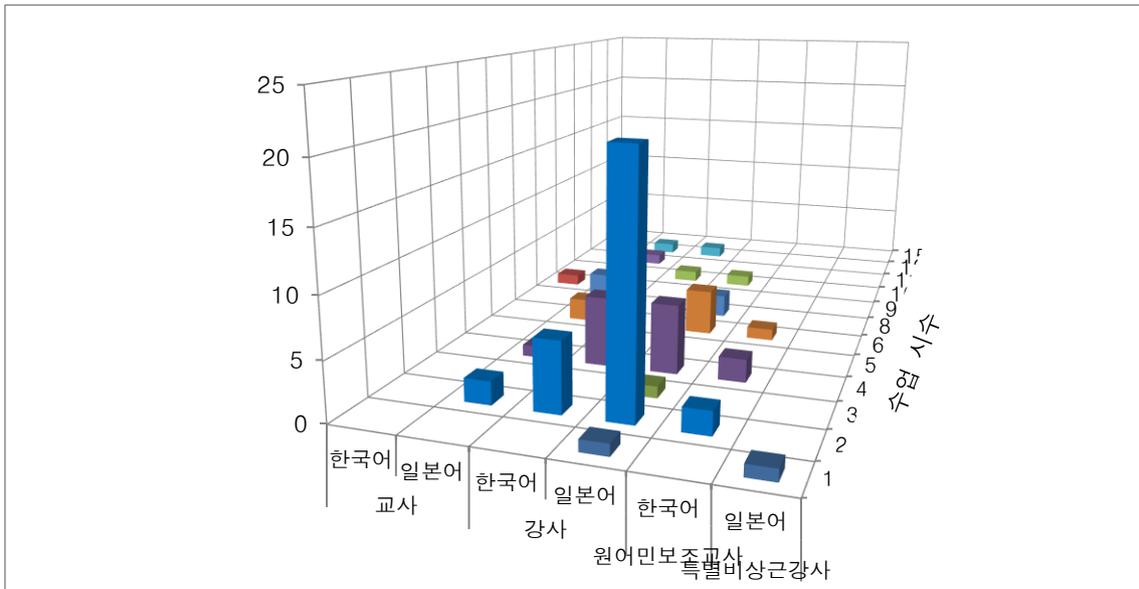


그림 13 담당 교원 (직위별, 모국어별 인원수와 수업 시수)

다음으로 학교 별로 한국어 담당 교원의 속성과 인원이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 표 22 에 정리하였다.

표 22 한국어 담당 교원 구성과 학교 수

담당 교원 구성 경향	학교 수
강사 1 명	22
교사 1 명, 강사 1 명	4
강사 2 명	4
강사 1 명, 원어민 보조교사 1 명	4
교사 1 명	2
교사 2 명, 강사 2 명	1
교사 1 명, 강사 2 명, 원어민보조교사 1 명	1
교사 1 명, 특별비상근강사 3 명	1
강사 3 명	1
강사 2 명, 원어민 보조교사 1 명	1
계	41

강사가 1 명인 학교가 22 개교(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교사 1 명과 강사 1 명, 강사 2 명, 강사 1 명과 원어민보조교사 1 명의 구성인 학교가 각각 4 개교씩 있었다.

4.2.5. 한국어 교육 지도 내용에 대하여

이 설문에서는 학습 1 년 차(입문, 초급)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제시된 2 개 항목 사이에서 어느 쪽에 어느 정도 더 중점을 두고 수업하는지를 1 에서 4 까지의 수로

회답하도록 하였다.

위의 설문에 대한 회답 수치를 집계하여 문항마다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문항마다 중간치는 2.5 로, 각 문항의 평균치가 2.5 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수업에서 무엇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지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결과를 그림 14 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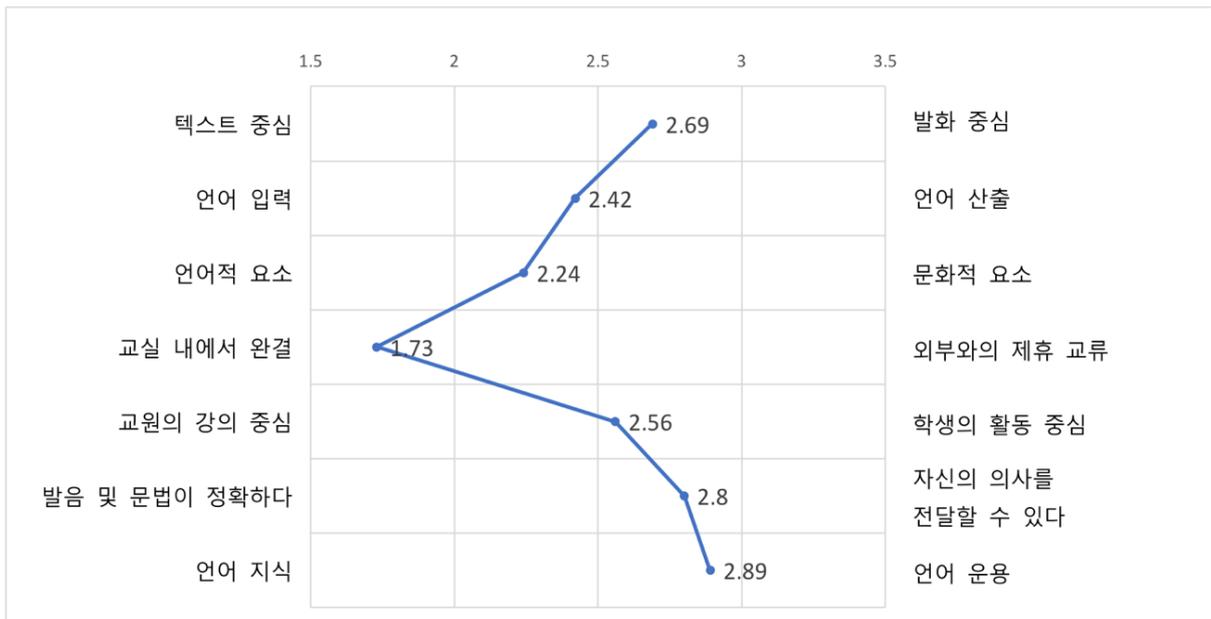


그림 14 한국어 교육 지도 내용의 경향

그림 14 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 지도에 있어서 ‘텍스트 중심’보다는 ‘발화 중심’에, ‘발음 및 문법의 정확성’보다는 ‘자신의 의사 전달’에, ‘언어 지식’보다는 ‘언어 운용’에 중점을 두는 등, 출력(output) 지향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언어 산출’보다 ‘언어 입력’, 문화적 요소’보다 ‘언어적 요소’를 지향하는 경향 즉 입력(input) 중심의 지도 경향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와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교실 내에서 완결된 수업을 진행’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외부와의 연계 수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7. 지도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한국어를 지도하는 데 있어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결과는 다음 표 23 과 같다.

표 23 지도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 유무 현황

가이드라인의 유무	세부 항목	학교 수
있음	“外国語学習のめやす(외국어학습 지도 가이드라인)”	12
	한국어 관련 검정 능력 시험	6
	기타	1
	소계	19
없음		26
계		45

학습 지도 목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19 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답하였고, ‘없다’고 답한 고등학교가 26 개교로, ‘있다’고 답한 고등학교 수보다 많았다. 지도 목표가 ‘있다’고 응답한 학교에서는 “外国語学習のめやす(외국어 학습 지도 가이드라인)¹¹”를 이용하는 학교가 제일 많았다.

4.2.6. 사용 교재에 대하여

한국어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 물었다. 복수 회답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¹¹ “外国語学習のめやす(외국어 학습 지도 가이드라인)”는 문부과학성의 위탁 사업으로, 2006 년부터 2 년간 국제문화포럼이 추진한 ‘고등학교 중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약 10 년간의 연구와 개정을 거듭하면서 일본 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학습 전반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다.

표 24 사용 교재 현황

교재명	응답 수
新・好きやねんハングル I (白帝社)	19
最新チャレンジ! 韓国語 (白水社)	14
自作プリント・独自のテキスト	6
なし	3
基礎から学ぶ韓国語講座・初級 (国書刊行会)	2
「ハングル基礎」(白水社)	1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聞いて話そう (白帝社)	1
すぐに使える韓国語アクティビティ (白帝社)	1
ちょこっとチャレンジ! 韓国語 (白水社)	1
できる韓国語 初級 I (DEKIRU 出版)	1
改訂版 パランセ韓国語初級 (朝日出版社)	1
韓国語の初歩 (白水社)	1
韓国語をひとつひとつわかりやすく (学研教育出版)	1
韓国語を話したいと思ったら はじめての韓国語会話』(駿河台出版社)	1
基礎から学ぶ韓国語講座・中級 (国書刊行会)	1
한국어 1, 2 (서울대학교출판)	1
계	55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주 교재로는 고등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新・好きやねんハングル I”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最新チャレンジ! 韓国語”가 많았다. 주된 교재로 프린트를 사용하는 학교도 6 개교로 적지 않았다.

5. 과제

이번 파일럿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드러나게 되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회답하기 쉬우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설문과 회답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여전히 예상치 못했던 과제들이 존재하였다. 이를 얼마나 세분화해서 파악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2) 이번 조사에서는 되도록 설문지 회답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접근하였으나 예상 외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비상근 교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기관의 실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속 기관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회답하기 힘들었다. 반대로 소속 기관 상근 교원이면서 한국어 교육 담당자가 아닌 교원에게 의뢰한 경우는,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3) 대학 담당자가 설문에 대해 쉽게 회답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 및 추가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 기반 웹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선할 점이 발견되어 웹 시스템의 대대적 수정 필요성이 대두었다. 수정 시에는 대학 조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년제 단기대학과 전문학교, 5년제 공업고등전문학교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구축할 계획이다.

(4) 기본적으로 인터넷 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질문을 생략하고 최대한 회답하기 쉽게 설문지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기관에 있어서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너무 복잡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5) 조사 항목 책정과 웹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예상 외로 시간이 걸려 조사 기간과 분석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 내년도 이후 좀더 여유를 가지고 상세한 분석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6. 마무리

일본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파일럿 조사로 2019 년도에는 조사 항목, 설문 내용, 조사 방법 등을 책정하고, 데이터 베이스 기반 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번 조사는 대학 100 개교와 고등학교 50 개교를 목표로 삼았으나, 78 개 대학의 91 개 프로그램과 45 개의 고등학교로부터 회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조사 결과는 4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이번 파일럿 조사는 일본의 전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20 년도에는 2019 년도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 항목, 설문 내용, 조사 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개선함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육 현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어 문헌〉

국제교류기금, 2018, “2018 해외한국학백서”.

오고시 나오키, 1994, ‘일본에 있어서의 Korean language 교육의 실태 조사’, “한국어 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1-284.

〈일본어 문헌〉

大村益夫(오무라 마스오), 1977, ‘大学における朝鮮語講座の現状(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좌 현황)’, “季刊三千里”, 12.

大村益夫(오무라 마스오), 1984, ‘大学における朝鮮語教育の現状(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季刊三千里”, 38.

国際文化フォーラム(국제문화포럼), 1999, “日本の高等学校における中国語教育の広がり—韓国朝鮮語教育との比較で見る—(일본 고등학교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발전 양상—한국어 교육과의 비교를 통하여-)”.

国際文化フォーラム(국제문화포럼), 2005, “日本の学校における韓国朝鮮語教育—大学等と高等学校の現状と課題—(일본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황과 과제-”. 文部科学省総合教育政策局教育改革・国際課(문부과학성 종합교육정책국 교육개혁・국제과),

2018, ‘平成 29 年度高等学校等における国際交流等の状況について(2017 년도 고등학교 등에 있어서의 국제교류 등의 상황에 대하여)’.